

## 讀書人の 姿勢

### 第2回 『全日讀書의 밤』을 보고

文 道 采  
光州商高 校監

4월 16일 오후 6시부터 4시간에 걸쳐 全南日報社와 全南放送局後援으로 全日放送公開홀에서 가진 全日圖書館주최 제2회 「全日讀書의 밤」을 보고 教育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참고삼아 몇말씀 적고자 한다.

高校平準化實施후 光州市內高等學校에서는 今年를 學校等級決定의 해로 보아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工夫 그것 아니면 죽음을 가지라」는 式的 強行軍을 하고 있다. 學生들이나 父兄들 역시 自身の 運命이 高校3個年の 生活如何에 따라 左右된다는 點에서 人間形成이니 教育本來의 目的이니 따질 겨를이 없다. 이러한 메마르고 숨막히는 風土속에서 靑少年善導策의 하나로 「全日讀書會」의 운영을 통하여 脫線하기 쉬운 抵抗期의 高校生들을 알뜰히 가꾸려는 全日圖書館의 活動計劃에 讚辭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대개의 行事가 가을에 있게 마련인데 이번 行事의 時期를 봄철로 택한 것은 學校에 못지않게 神經을 쓴 企圖으로 成功을 거둔 셈이다. 즉 會員들로 하여금 讀書會員으로서의 自負心을 가지고 學校生活에 보다 忠實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生活속에서 讀書과 緣을 끊지 않고서도 學校의 優等生이 될 수 있다는 確證을 보여 주었고 또 行事에 參與했다는 그것만으로도 一般學生이 지니지 못한 讀書과 文藝에 대한 一家見을 가졌다는 自信을 지니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6시 30분에 국민의례로부터 시작된 이 行事는 會長 강도근군의 인사말과 李一龍館長의 격려사와 會員一同의 「全日讀書會歌」합창에 이어 會員들의 녹음詩 1편, 合唱詩 2편 自作詩 8편 수필 3편 讀後感 7편 공트 2편 서간문 1편 評論 1편의 朗讀으로 사이사이에 朝大附高 악대소속 이종면 임성정군의 管樂 二重奏와 선배회원 김민자의 古典舞踊과 장미숙의 가야금散調와 선배회원들의 男女混聲合唱 「낙동강 칠백리」가 알맞게 곁들여

져 더욱 흥을 돋구었다.

「讀書의 밤」행사로서 文藝物朗讀이 爲主가 되었다는 점, 아쉽기도 하였지만 平素의 讀書會活動을 통하여 曠속의 知識과 感情世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形式으로든 深層意識을 表現해 보고 싶은 意慾이 솟구쳐 未熟하나마 作品을 써서 發表까지 하게 된 執念을 嘉賞타 아니 할 수 없다.

文學을 專攻하는 文學徒들이 아니기 때문에 作品들은 水準級에 到達하지 못했지만 선배회원들의 지도로 調和的인 場內構成, 着實한 進行·發表者들의 態度등 學生답게 질서정연했고 또 꾸준한 연습으로 朗讀法이 熟達되어 作品의 內容이 제대로 傳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行事의 壯元감은 역시 「全日讀書人의 對話」로서 김용수의 5명의 會員들이 金東仁作 「붉은 산」을 놓고 討論을 전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처음 갖는 壇上에서의 公開討論이 왜서 未熟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앞으로 가질 「讀書의 밤」行事는 이러한 方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슨 行事든 成果도 重要하지만 그 行事가 있기까지의 過程이 보다 보람찬 것이다. 會員들은 이번 行事에서 얻은 經驗을 토대로 보다 나은 讀書人이 되기 위해서는 發表에 앞서 自我充實에 힘써야 할 것이다. 讀書會員 本然의 姿勢로 돌아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讀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센스있는 사람에게 讀書를 指導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한테 별로 쓸모없었던 책에 낭비한 時間의 量을 생각하던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서머셋 모음>은 回顧하였다. 그런데 이번 行事의 主人公들은 좋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번 討論과 같은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時間을 자주 가져서 讀書法을 스스로 개척해야 할 것이다. 「지은이는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왜 이런걸 써서 사람을 괴롭히며 무슨 영향을 주려고 이 책을 썼을까하는 質問의 答을 찾기 위하여 努力할 때 우리는 讀書人이 될 수 있다」고 또 모음은 말하였다. 비단 全日讀書會會員뿐 아니라 모든 學生들이 學校當局의 指導方針과 自身の 進路에 금이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健全한 讀書生活을 통하여 값진 體驗 즉 自身の 成長을 꾀함으로써 알찬 人間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行事의 바람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